

무림페이퍼, 7개월만에 파업 종료

진주공장,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 ... 평화선언에 대규모 투자도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 진주공장 노사가 장기간 파업 끝에 12월21일 임금·단체 협상을 타결했다.

무림페이퍼 노사는 12월21일 열린 19차 임금·단체 협상에서 기본급 4.1% 인상, 정년 60세(임금피크제 2년 포함), 격려금 50만원 지급, 일부 성과급제 수정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5월부터 기본급 8% 인상, 정년 58세에서 62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18차례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기본급 4.1% 인상, 휴가비 20만원 인상, 정년 60세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자 10월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무림페이퍼는 노사 상생을 의미하는 평화선언에 이어 진주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4>